

행복홀씨 입양 '큰 성과'

순창군, 지역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식 진행 · 지역 환경 가꾸기 동참

순창군이 내가 사는 지역을 내손으로 직접 가꾸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전국적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21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행복홀씨 입양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 25개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25개 사회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여해 지역 환경을 가꾸는 일에 뜻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순창지역에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참여한 단체는 총 47개 단체로 대폭 늘었다.

이들 단체의 회원수만 2,600명이 넘는 규모다.

특히 이날 행사는 협약식에만 그치지 않고 그동안 참여했던 47개 단체들이 지역 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합회도 구성해 앞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 효과에 대한 기대

를 크게 했다.

이날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연합회에는 순창읍 주민자치위원장인 김중국씨가 총무에는 지미라씨가 선출됐다.

연합회는 앞으로 활동과제 발굴 및 활동사항 점검 군과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매일 하루를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날로 정하고 모든 단체가 참여해 해당 지역에 대해 대규모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중국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연합회장은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가꾸 깨끗한 자연 환경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면서 "앞으로 순창군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가장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도 인사말을 통해 "클

린순창운동을 추진해 농촌환경 개선운동의 전국적 성공사례가 되고 있는 우리군에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연합회와 함께 군 차원에서도 노력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창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지역이 공인, 지역명소 등 일정구간을 주민 및 단체가 입양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는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지난 3월 홍은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해 (주)대상과 제호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군의 역점사업인 클린순창 운동과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음식물쓰레기 직매입 금지 정부정책에 따라 그동안 공동주택,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단독주택으로 확대

임실군, 주민홍보에 나서... 9월 한달간 무료수거기간

임실군은 음식물쓰레기 직매입 금지 정부정책에 따라 그동안 공동주택,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일부터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열고 올해 9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용수거용기 납부접 사용방

법도 시연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시행단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은 무료수거기간으로 음식물 분리배출의 편리성을 홍보하고 주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주 2~3회 수거함으로써 음식물 혼합배출로 인한 악취발생 저감 및 매립장 사용연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별 설명회 개최, 주요 시가지 개별방문 홍보, 주요지역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베리&바이오연구소, 베리굿소스 제품 중간보고회

내달 초 브랜드 개발키로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베리굿소스산업육성사업에서 개발된 제품에 사용할 공동브랜드 개발(BD)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는 21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문규환 연구소장(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해 고창군(7개 업체), 정읍시(2개 업체), 부안군(2개 업체)의 식품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동브랜드 개발 중간보고회는 디자인 전문업체인 (주)아이비즈웍스와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군의 업체 대표를 비롯 사업단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참석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8월 초 브랜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공동브랜드는 베리류를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가공해 소비자에게 베리류의 가치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활용되며 베리류 가공 제품과 소스에



대표 브랜드로 사용돼 가공업체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리굿소스 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지난 2015년 고창군이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북도 지원으로 정읍시와 부안군이 참여하고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정읍, 부안이 함께하는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베리굿소스산업육성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BD, CI를 개발해 홍보와 마케팅 전략 수립에 나갈 것"이라며 "3개 시·군에서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문화가 있는 날' 개최

작은별 영화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관람료 할인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은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영화 관람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춰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작은별 영화관'은 매일 2~3편의 최신 개봉영화를 서울과 동시에 상영해 '가까워진 영화관, 즐거운 문화생활'을 구현하고 있으

며, 행사일에 맞춰 2D:5000원, 3D:8000원의 관람료를 1천원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영화 관람료 할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작은별 영화관이 군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한미당 작은별 영화관은 지난 2013년 9월 임실군민회관 지하 1층에 2개관(1관 39석, 2관 55석) 총 94석 규모로 개관했으며, 문의사항은 영화관(☎644-7050) 또는 홈페이지(www.imsil.co.kr)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마을인연맺기 도농화합 첫 발

서울 도봉 · 은평과 교류 협약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마을인연맺기기를 통해 도농화합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고창군 식도라마을체험사업단(단장 이승호)은 21일 그동안 틈틈히 다져온 식도라마을주민들의 기반과 역량을 토대로 도심 지역의 마을과 마을인연맺기 교류에 첫 발을 디뎠다.

고창 식도라마을체험사업단은 서울시 도봉구마을지원센터(센터장 지혜연)와 은평마을지원센터(센터장 조옥분)와 마을인연맺기 교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마을 인연맺기의 대상은 고창

군 식도라마을 중 상하면 '송림마을', 아산면 '비명마을'과 서울시 도봉구 창2동 주민들과 은평구 아파트 2단지 주민이다.

식도라마을과의 인연맺기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의식'이 깨어 있는 문화적교류(도농화합)를 기반으로 교양, 관광·휴양, 농산물 재배방식 등을 교류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식도라마을체험사업단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류를 진행하면서 인연맺기 마을들에 고창군의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우리가 만드는 건강한 학교'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건강심GO, 건강 올IGO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 제일고등학교와 함께 제일가는 우리학교 김·왕·짱! '우리가 만드는 건강한 학교' 프로젝트를 담차고 알차게 추진한다.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제일고등학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치고 7월 20일, 제일고등학교에서 교직원 대상 설명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7월 25일부터 한방비만교실을 시작으로 프로젝트의 첫발을 내딛는다.

청소년 시기의 건강습관은 개인의 평생건강을 좌우하고 크게는 미래의 인적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바, 청소년 시기부터 건강생활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비만,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자살예방, 스마트쉼터, 건강 벽화그리기, 건강체험관 참여 등의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실시한 청소년 행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일가는 건강학교로 만들고자 한다.

'우리가 만드는 건강한 학교' 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10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사업추진 후 학부모·교사·학생들이 함께하는 평가보고회 등을 추진하여 우리의 미래, 건강한 청소년으로 길러낼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군 드림스타트 취약아동 검진

순창군이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위기 아동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아동 2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성장기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육을 지원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혹시 모를 건강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건강검진은 아동의 상담 및 진찰을 통해 혈액검사 5종, 알레르기검사 등 7종의 검사를 통해 성장발달점검을 실시하고 진료비 및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이선호 주민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건강분야 뿐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운봉 고랭지 벼농사 첫 항공방제

운봉 고랭지 벼 재배면적은 1,203.5ha이며, 800ha (67%)를 이번엔 첫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도내재 반점미 피해로 생산한 벼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원인으로 갈수록 노령화에 의한 벼농사 병해충방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농가들의 대응도가 높아 항공방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운봉지역 벼농사 주품종은 운봉벼, 조광벼로 지난 5월상순 모내기한 논에서 20일경부터 출수가 시작되었다. 이달 25일경 출수가 가장 많이 될것으로 판단 방제날자를 25일부터 30일 사이에 3일간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엔 방제하게될 대상병해충은 목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노린재, 도복방지체를 혼용하여 방제함으로써 쌀의 품질을 높이는 적절한 방제가 될것으로 본다.

이에 농가에서는 병해충방제를 하고싶어도 방제 인력이 없는데 이번 항공방제로 종년농사를 기약하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민원실 유니폼 착용

임실군 민원실은 경직된 행정 분위기를 탈피하고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 위해 유니폼을 착용,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여권, 통합민원 등 창구직원 8명에게 유니폼을 착용시키는 등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팀장들이 직접 민원사전상담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에 앞장서 해당 성과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을 1회 방문 해결 및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서 찾아가는 간담회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동계파출소(소장 박현규)에서는 동계면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파출소장, 군의원, 면장 등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간 30개 마을 7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부락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마을방범 CCTV 100% 설치, 전화금융사기 예방, 음주 및 교통단속의 당부 성과 노인 상대 교통안전운전 교육과 더불어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전동휠체어에 후방반사지를 현장에서 부착하여 주는 이벤트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동계파출소장을 비롯한 각기관장들은 행정기관들이 주민과의 대화의장을 자주 만들어 의견을 듣고, 특히 동계면의 경우 마을방범 CCTV 설치실적이 70%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100% 설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순창=이양원 기자